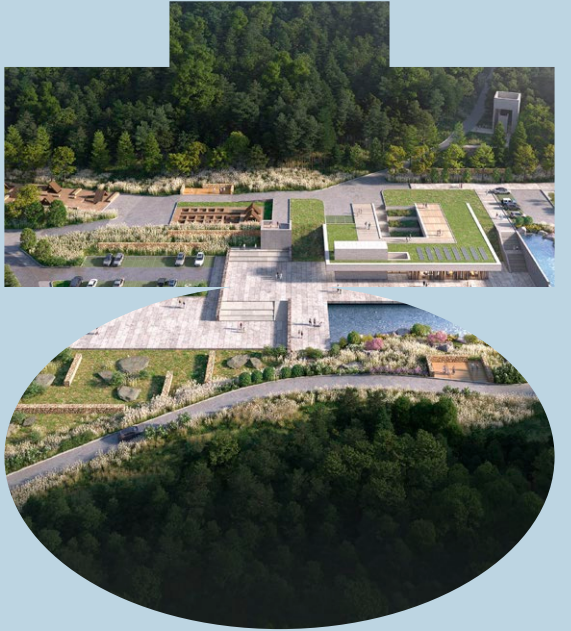




SARANG



시론 02

AI 시대, 건축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건축사 인터뷰 03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건축의 '신세계'로 _ 나병훈 건축사(신세계 건축사사무소)

작품소개 04-06

광양 꼬수미 _ 김영지 건축사 / 지오 건축사사무소

쁘티포레 _ 유성환 건축사 / 예손 건축사사무소

광주과학기술원 커뮤니티라운지 _ 조희정 건축사 / 정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뉴스 07-09

광주·전남건축사회,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6월 건축사실무교육 성료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전남건축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개최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AI 재직자교육 실시

전남건축사회, 여성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운영방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건축문화상(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공모

전북 익산,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답사기 10

시간의 층위와 공간의 본질을 찾아서

설계공모 11

현산 역사문화체험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광고 12

건축사공제조합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7월호(200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AI 시대, 건축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요즘 어디를 가나 AI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자료를 정리하고, 때로는 도면이나 디자인 아이디어까지 제안한다. 건축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설계 초기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회의자료를 정리하거나, 복잡한 법령과 기준을 빠르게 찾아보는 과정에서 AI는 분명 편리한 도구가 되고 있다. 바쁜 실무 속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줄여주고, 막막한 생각의 출발점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AI의 장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축에서 AI를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AI가 말하는 내용이 언제나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다. AI는 질문에 그럴듯한 답을 내놓지만, 그 답이 실제 법령과 맞는지, 현장 조건에 맞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까지 스스로 책임 지지는 못한다.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을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섞어 설명하기도 한다. 문장은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틀린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하다.

건축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건축사는 대지 조건, 법규, 구조, 안전, 사용자의 생활, 도시와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건축 인허가, 피난·방화, 구조 안전, 에너지 기준, 감리 업무처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영역에서는 작은 착오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은 AI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 결국 최종 판단과 확인은 건축사의 몫이다.

AI가 제안하는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화면 속 이미지는 화려하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인지,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 대지와 주변 환경에 맞는지, 법규상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AI가 만든 이미지는 때로 현실보다 상상에 가깝다. 건축사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믿기보다, 그 안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만 골라 현실의 조건 속에서 다시 다듬어야 한다.

그렇다고 AI를 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AI는

잘만 사용하면 건축사의 업무를 돕는 좋은 보조자가 될 수 있다. 회의록 초안을 만들고, 보도자료 문장을 정리하고, 공문 표현을 다듬고, 여러 아이디어를 빠르게 비교하는 일에는 도움이 된다. 설계 방향을 잡기 전 다양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참고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보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AI를 '정답을 주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한 초안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바라보는 태도다.

건축사에게 필요한 것은 AI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아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빠르게 받아들이기보다, "이 말이 맞는가?", "근거가 있는가?", "우리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를 다시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 법령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검토하며, 중요한 판단은 경험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내려야 한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건축의 최종 책임자는 여전히 사람이다.

앞으로 AI는 건축 실무 속에 더 깊이 들어올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AI는 빠르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AI는 많은 답을 내놓지만, 그 답이 옳은지 판단하는 눈은 건축사에게 있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건축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의심하고 검토하며 현실에 맞게 책임 있게 사용하는 능력일 것이다.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일이다. 그렇기에 건축은 편리함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빠른 답변만으로 결정될 수도 없다. AI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를 현실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은 결국 건축사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책임감 위에서 이루어진다. AI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건축사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가 AI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술인 종합교육기관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보수교육

“해체감리업무를 위한 실무교육
세종·충남·충북·대전권 접근 편리”

세종

전주

광주

광양

세종·전주·광주·광양
편리한 교육 접근성!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 최소화

비산먼지·소음·진동 관리

해체계획서 이행 점검

교육 특징

- 기본교육·최초교육·
승급교육·계속교육
체계적인 교육과정
- 실무 중심의 전문 강사진
이론 + 현장 실무
노하우 전수
- 국토교통부 지정
공신력 있는
전문 교육기관

전문성으로 **안전**을 지키고,
교육으로 **가치**를 더합니다.

재단법인 대원산업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일정확인 | <https://www.hicte.or.kr/>
교육문의 | 062-513-0116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건축의 ‘신세계’로

신세계 건축사사무소 나병훈 건축사와의 만남



나병훈 건축사(광주)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자 광주건축사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병훈 건축사입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에서 건축구조 및 건축설계를 전공하였으며, 중흥건설, 주택관리공단을 거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기획설계 및 공사감독,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공동주택 설계 자문, 주택관리사 기술교육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택관리사 및 주거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신세계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해 공공과 민간의 기획, 설계·감리 안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간 조성사업 등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업무와 공동주택 품질점검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건축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신세계 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에는 ‘건축사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세계’는 건축사의 역할을 설계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시, 문화, 정책, 사람을 연결하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세계건축사사무소는 기존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인 발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사사무소가 되고자 합니다.

Q. 설계 또는 업무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교육부 선정 2025년 우수사전기획 보고서로 선정된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입니다. 사전기획가로서 학교 현황 분석부터 사용자 의견 수렴, 미래 교육 방향 설정, 공간 구성 계획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들이 졸업하고 떠난 뒤 후배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공간을 위해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과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사용할 공간을 계획하는 것처럼 심사숙고하여 모형을 만들고, 인사이트 투어에 참여하며 미래 학교의 모습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함께하는 에듀마실 #6. 광주용봉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보고서



(사전기획 월간 건축사 캡처본)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단순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변화와 사용자의 경험이 담긴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계획한 내용이 교육 현장 곳곳에 반영되고 그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건축사로서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청년 건축사들, 특히 최근 개업한 건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모르는 것이 생겨도 누구에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개업 초기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계보다 계약, 행정, 세무, 노무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청년 건축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협회가 상담창구와 원스톱 지원체계, 선배 건축사와 함께하는 멘토링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 건축사의 창업 공간 확보에 도움을 준다면 이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 건축사의 경험이 젊은 건축사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이 다시 모두의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상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물이나 건축인이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 건축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빌딩245입니다. 전일빌딩245는 광주의 역사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의 미래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기존 도심의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지하 공간과 열린 광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도시와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늘마당, 상상마당, 아시아문화광장 등의 열린 휴게공간은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밀집된 도시 환경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문화와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일빌딩245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과 재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담아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내부에 남아 있는 탄흔과 흔적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간 자체가 기억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의미있는 사례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두 건축물을 바라보며 건축은 단순히 기능을 담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세계 건축사사무소 내부



○○학교 고교학점제 설계용역



○○학교 보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



청소년 문화공간 설계용역

전라남도건축사회

광양 교수미(광양장애인직업재활시설)

김영지 건축사 / 지오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읍 서천2길 12-1 2층 / Tel. 061-913-0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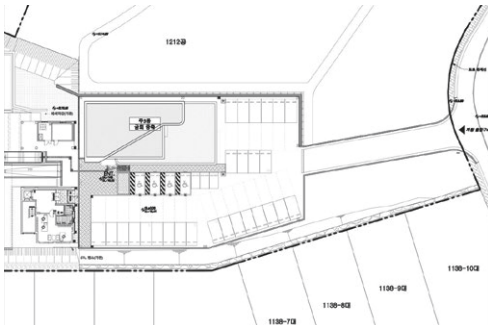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마동 1212번지 외1필지 / 건축면적 : 359.64㎡(금회중축) / 연면적 : 573.20㎡(금회중축)
주용도 : 노유자시설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루버강판, 벽돌타일, 외부용 수성페인트, 로이복층유리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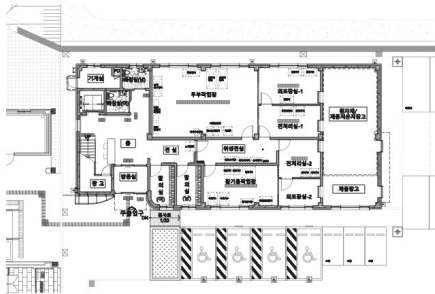
광양 교수미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근로와 교육, 휴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계획해 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직업능력을 키우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은 각 작업 공간의 기능과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구성했으며, 밝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통해 장시간 근무하는 이용자들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작업공간과 관리공간, 휴게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원활한 시설 운영과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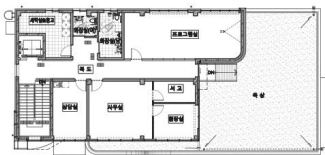
광양 교수미에서는 두부와 참기름 등의 제품을 생산하며,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곳은 건축을 통해 일과 자립, 소통과 돌봄의 가치를 담아낸 공간으로서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일터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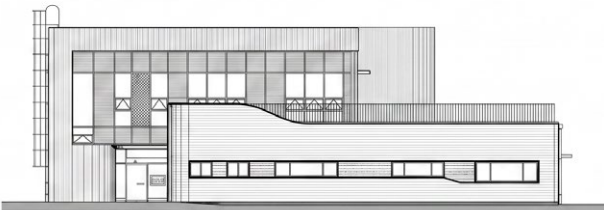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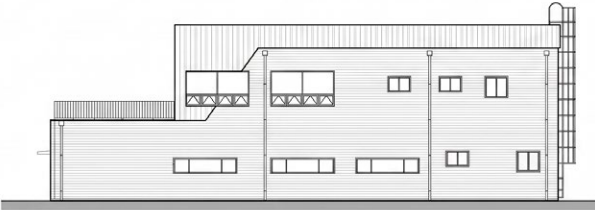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쁘티포레

유성환 건축사 / 예손 건축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로 43 / Tel. 063-226-4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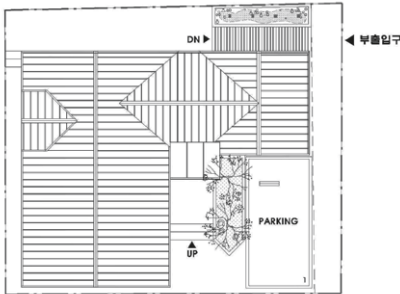
도에 작가로 활동하는 지인의 작업실 겸 전시 공간을 만들고자 건축부지를 알아보던 중 남쪽에 공원이 있고 햇볕도 잘 드는 조그마한 대지를 찾았다.

최소한의 건축비용으로 쓸모 있고 아름다운 건물을 신축하여야 했다. 경량철골 판넬 마감, 각파이프 구조를 미학적 접근법으로 두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었지만 처음 시도 해본 공법의 어려운 난제가 많았고 구조 소장님 도움으로 멋지게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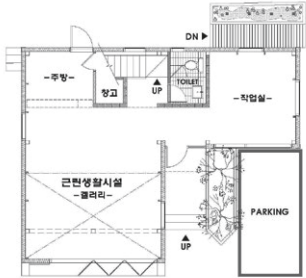
개발에 소외된 조용한 동네... 뿌티포레는 주민과 소통하는 멋진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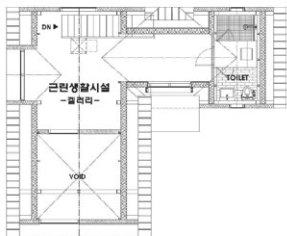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진북동 1029-35번지 / 대지면적 : 142.1㎡ / 건축면적 : 65.845㎡ / 연면적 : 97.49㎡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경량철골 / 주요마감 : 준불연판넬, 아연도강판(돌출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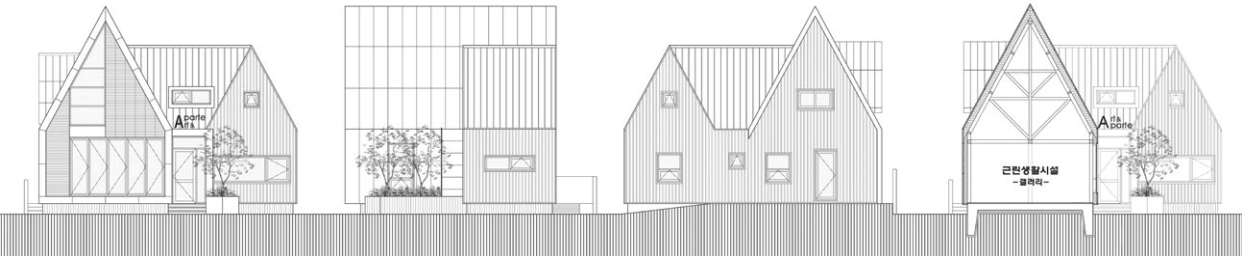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남측입면도

동측입면도

북측입면도

건물종단면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광주과학기술원 커뮤니티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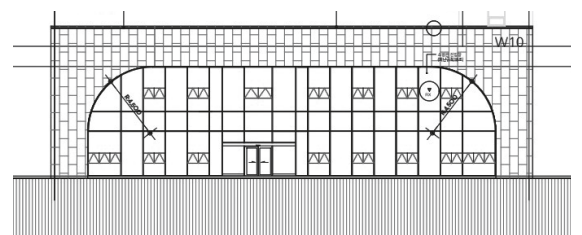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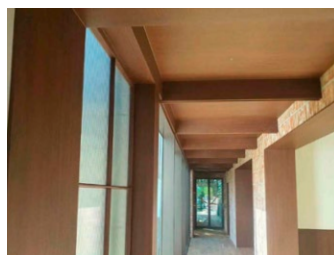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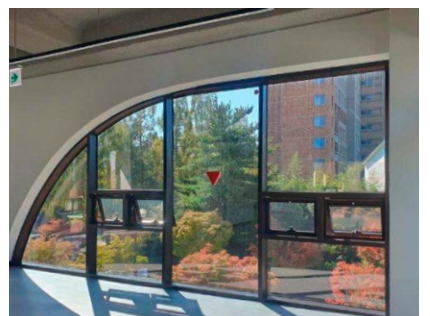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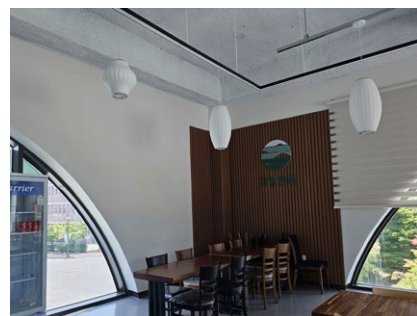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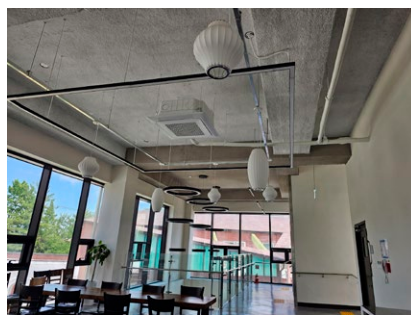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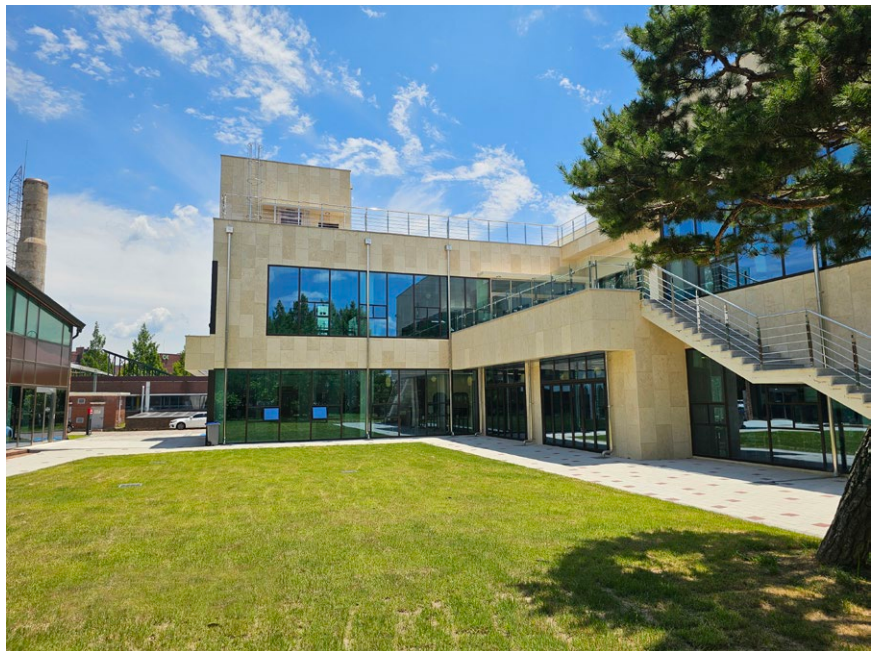
조희정 건축사 / 정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318, 나동 102호 / Tel. 062-400-4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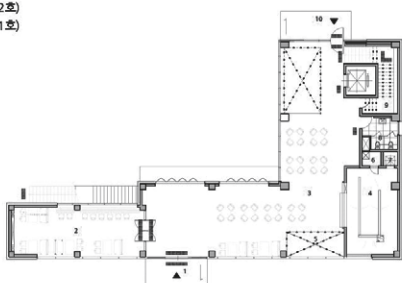
고정주 커뮤니티 라운지의 외관은 단정한 석재 마감과 넓은 곡선형 유리창이 조화를 이루며, 내부의 활동이 외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방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특히 푸른 하늘과 녹지, 투명한 유리 입면이 어우러져 캠퍼스 안에서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고정주 커뮤니티 라운지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기부자의 뜻과 구성원들의 참여가 모여 완성된 GIST의 새로운 소통거점이다. 앞으로 이 공간은 지식과 사람이 만나고, 다양한 교류와 휴식이 이루어지는 캠퍼스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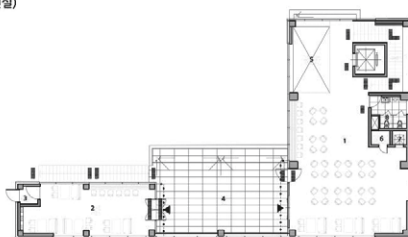
입면도

1. 진입 앞마당
2. 휴게 음식점(102호)
3. 구내식당 (101호)
4. 주방
5. 셀프바
6. EPS
7. 엘리베이터
8. 화장실 (여)
9. 다용도실
10. 진입 뒷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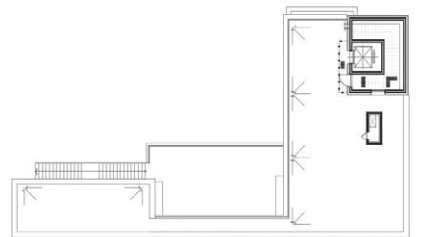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휴게 음식점(201호)
2. 휴게 음식점(202호)
3. 비상탈출구(전실)
4. 테라스
5. OPEN 중경
6. EPS
7. 엘리베이터
8. 화장실 (남)



2층 평면도

1. 옥상광장



옥상층 평면도

광주·전남건축사회,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통합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



광주건축사회와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2일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건축사회 통합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 7명과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건축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협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광주·전남 건축사회의 통합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 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후속 논의를 위한 다음 회의를 오는 7월 23일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건축사회, 6월 건축사실무교육 성료

강형주·박구용 교수 강의를 통해 역량 강화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지난달 24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건축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6월 건축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교육에서는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강형주 교수가 ‘미래의 건축’을 주제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시를 활용한 건축설계의 활용과 실무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는 ‘건축과 공간심리’를 주제로 건축공간이 인간의 심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 공간이 지닌 철학적 의미와 미학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대응하고 회원들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7월 25일(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청사 1층에서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7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청사 1층 시민홀에서 ‘제2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똑똑똑 히어로! 내가 만드는 안심 광주’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건축과 도시를 친숙하게 접하고, 안전한 도시를 스스로 상상하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소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며, 모집 분야는 ▲유치원부 ▲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부(4~6학년) 등 3개 부문이다. 참가 신청은 7월 22일(수)까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대회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는 크레파스, 색연필, 물감 등 원하는 그림 재료를 직접 준비하면 되며, 도화지는 행사장에서 제공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축과 도시를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자유롭게 상상하며 창의력을 펼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건축학부 2026 졸업작품전 개최

건축도시설계전공·건축공학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2026 졸업작품전(건축도시설계전공·건축공학전공) 개막식이 지난 1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건축단체연합회 김종원 회장,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광주전남건축가회 김기준 회장,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한승훈 회장을 비롯해 건축학부 교수와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해 졸업작품전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졸업작품전은 학생들이 학업 기간 동안 쌓아온 설계 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자리로, 건축도시설계전공과 건축공학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작품을 둘러보며 예비 건축인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응원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며 쌓아온 경험이 앞으로 건축인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은 온라인 전시로도 함께 운영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7월 31일까지 관내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에 기여한 공간 추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나무심는건축인은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을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26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아름다운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문화도시 광주의 재생적 기반 조성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 조성에 기여한 공개공지와 담장, 가로 및 공개공원, 벽면·옥상공원 등이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시민 누구나 지역 곳곳의 우수한 공간을 추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추천 장소 설명서와 장소 사진 등 관련 자료를 5매 이내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8월 21일 발표하고 시상식은 8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1층 시민홀에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별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전남건축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개최

협회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 의견 나뉨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지난달 10일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건축사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회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협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법·제도 개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건축사 업무환경 개선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건축사 제도의 발전과 협회의 역할 강화, 회원 서비스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록 회장은 “회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협회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축사의 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건축사회,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AI 재직자교육 실시

지역 건축사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전라남도건축사회는 목포대학교 RISE사업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 23일 서부권(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과 6월 26일 동부권(순천대학교 미래창조관)에서 지역 건축사를 대상으로 ‘AI 활용 마스터 재직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시티 ICC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 건축사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축설계 업무 효율화와 건축 시각화 실무 적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서부권 약 140명, 동부권 약 160명 등 건축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와 실무 적용 방법을 익히며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건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건축사회, 여성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운영방향 논의

여성 건축사의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6월 30일 도협회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여성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일 회장, 배종수 부회장, 이주경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새롭게 위촉된 여성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여성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여성 건축사의 참여 확대와 회원 간 소통 활성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여성위원회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

8월 31일까지 접수, 10월 시상 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는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를 8월 31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2022년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 민간건축물 발굴에 힘쓴 전남도는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까지 포함해 공모 대상을 확대해 올 해는 민간 공공부문 각 5개 내외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에서는 건립 시기에 상관없이 전남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부문은 전남도, 시군, 교육청 등이 시행하거나 조성한 공공건축물 중 준공된지 5년 이내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건축주(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개발과 관계자는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은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건축문화상(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공모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



(사진 =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제27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출품 신청을 받는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출품 신청은 7월 24일 금요일까지 사무처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이며, 공공·민간·조경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민간 부문은 주거(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와 비주거 분야(주거용 이외)로 구분된다. 출품 방식은 출품자가 직접 A0 규격 패널을 제작해 제출하는 방식, 패널 편집이 완료된 작품을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 출품자가 사진을 지정하면 주관 협회에서 패널을 제작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각 방식에 따라 제작비 부담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은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63706번을 참조하면 된다.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침하지반보강/복원
EcoSM 지반개량
마이크로파일
팽이기초공법
로타리파일(헬리컬)
강관압입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전북 익산,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사업 기간 단축 기대



(사진 = 익산군청 제공)

전북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회와 교통영향평가, 교육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 위주 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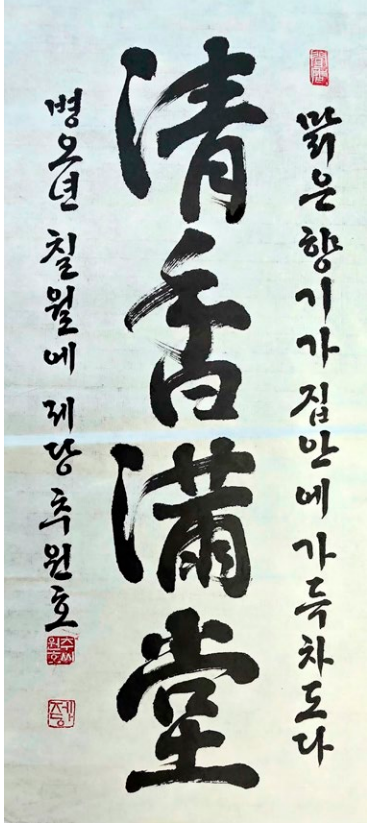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의 ‘팔복나래울’ 최종 선정



(사진 = 전주시청 제공)

전주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문화와 여가 거점 공간이 될 청년문화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전주청년문화센터는 팔복동2가 339-22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4,00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교육·문화공간, 창업·창작 및 프로젝트 공간 등을 갖춘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 공모 결과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제출한 ‘팔복나래울’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7개 팀이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종 10개 작품이 제출돼 경쟁을 벌였다. 심사 결과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돼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거머쥐게 됐다. 또 입상한 4개 팀에는 총 8,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에 대해 산업단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 구성이 우수하고, 체육·문화·창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청년문화센터가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들이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활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휘호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3명 (2026. 7. 8. 기준)

• 입회

- 강 현 건축사 / (주)토담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남구 주월로 58, 3층
- 심명섭 건축사 / 온담공간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지식산업센터 A동 1716호
- 최윤성 건축사 / 결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60-18, 302호

• 퇴회

- 정광렬 건축사 / 성지 건축사사무소

• 부고

- 강현구 건축사 /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 모친상 - 2026년 6월 25일(목)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88명 (2026. 7. 8. 기준)

• 입회

- 김혜선 건축사 / 아주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95-1

• 전입

- 박은숙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마리별 / 전남광주시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44, 1층

• 변경(소재지)

- 박명선 건축사 / 남도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62
- 김광평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세움 / 전남광주시 여수시 시청서 3길 5-9, 2층

• 부고

- 김영진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인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6월 22일(월)
- 최제용 건축사 / 포스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7월 2일(목)
- 박성우 건축사 / 일오삼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6년 7월 2일(목)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7명 (2026. 7. 8. 기준)

• 입회

- 이현숙 건축사 / 흥런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3, 2층

• 퇴회

- 김성용 건축사 / 자임 건축사사무소

• 변경(상호)

- 오경택 건축사 / (주)제이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디엠씨엔에이 건축사사무소

• 결혼

- 주진수 건축사 / 삼목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7월 4일(토)
- 정종성 건축사 / 미도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7월 11일(토)

• 부고

- 유영욱 건축사 / (주)건축무한이엔지 종합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6월 12일(금)
- 김병권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6년 6월 23일(화)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임현정
자문위원 서재환,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허만수
담당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가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6 / gjkira@empas.com)

시간의 층위와 공간의 본질을 찾아서

김정훈 건축사 / (주)정 종합건축사사무소



답사 기행을 시작하며

작년 건축답사동호회에 가입할 때의 마음은 '답사는 꼭 참가하자'였는데, 벌써 몇 번을 빠졌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빠지지 말자는 다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간만에 보는 답사 회원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타니, 기분이 설레었다.

첫 번째 답사지: 고창 황윤석 도서관

유튜브로 먼저 만나서 인지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건축물이었다. 최근 핫하다는 건축가 유현준이 설계한 줄 알았는데, 국내 건축사 라이선스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그 황당함이란...



서울의 종묘를 모티브

로 하여, 외벽은 구조 기둥을 제외하고 전면 유리로 개방했다.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했으며, 처마는 건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처마 높이에 변화를 주었다. 경사지붕 면에 다소 어색하게 얹어진 태양광 패널은 우리나라 공공건축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건축가의 설명이 기억났다.

좌우 길이가 90m가 넘는 장변의 건축물인데, 양쪽 처마의 높이를 다르게 구성하니 종묘의 경건함이나 일반적인 도서관의 정적인 느낌이 아닌 색다른 스케일감으로 다가왔다.

도서관 내부에 들어섰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이라 함은 휴게 공간, 화장실, 종합자료실, 독서대 등이 복도로 연결되고, 연령별 또는 주제별로 벽을 나누어 구획한 공간 계획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실내로 들어선 순간 도서관 내부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었으며, 모든 시설을 한 공간 안에 계획해 놓았다.

입구에서 1층과 2층이 한눈에 들어오고, 내부 벽체는 책으로 가득하며, 창가 독서대 너머로는 자연풍경이 스며든다. 책장 옆에는 언제든지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소파와 책상이 있고, 복도를 통해 화장실을 멀리 찾지 않아도 된다. 책을 보다가도 바로 옆에서 차 한잔 마시며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자녀와 함께 와서 나의 책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이 공존한다.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개방의 공간을 중층 계획으로 풀어냈으며, 높은 천장과와 함께 톱라이트(Top-light)를 통한 자연채광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 기법을 최대한 활용한 내부 공간 계획의 정수를 다 본 듯한 기분이었다. 물론 단점도 있고 다소 억지스러운 콘셉트도 느껴지지만, '우리 집 앞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면 나는 매일 와서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에 올랐다.

두 번째 답사지: 군산 원도심 영화동 "프로젝트 리터닝 군산"

가볍게 점심을 하고 두 번째 답사지인 군산 원도심 영화동 '프로젝트 리터닝 군산'에 도착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10년이 넘는 사업 기간,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주하니 보통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도로에서 보면 오래된 담장처럼 보이는 이곳. 대표님의 안내로 내부로 들어선다. 친근한 외벽, 정겨운 골목길, 건물과 어우러진 나무들... 그리고 골목길에 놓인 티테이불까지, 오래된 건축물이 주는 이 특유의 느낌이 참 좋았다. 나중에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가볍게 차 한잔 마시고 다시 대표님의 안내로 투어를 시작했다. 옛 건물을 사들

여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호텔을 신축하여 구옥과 어우러지게 디자인했다. 문틀 마감, 바닥 단차, 내부 마감, 창호의 형태와 위치 하나하나까지 치밀하게 고민하고 인테리어를 했다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니, 다시 한번 '보통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과 열정, 그리고 시간이 집약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주말에만 운영하는 재즈클럽, 카페일바, 레스토랑 등 문화와 음식이 있고 구옥과 신축의 공간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공간이다. 그리고 이렇듯 넓은 도시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건축가들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 답사지: 군산회관(옛 군산시민문화회관)

인구 감소와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해진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많은 시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전면 도로에서 터널형 진입로를 설치하여 1층 선크



(Sunken) 공간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내부 공간은 문화 활용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 회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일 오후인데도 회관을 찾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운영자의 눈물겨운 노력으로도 낙후된 주변 도심과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건축물 단독으로 활성화 이끌어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와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 결국 우리가 설계하고 지향해야 하는 건축이 바로 그런 건축이 아닐까 싶다.

답사를 마치며

몸과 눈으로만 즐기던 답사를 이렇게 글로 남기려 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답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동호회 집행부 회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산 역사문화체험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해남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현산면 읍호리 고다산성 및 고인돌군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심사위원 : 권현아(목포대학교), 김미선(동신대학교), 이미란(더엠건축사사무소), 한진수(토방건축사사무소), 정희욱(한국디자인진흥원)

-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28-5 일원
 - 대지면적 : 13,188.00㎡
 - 건축면적 : 792.26㎡
 - 연 면 적 : 657.66㎡
 - 건 폐 율 : 6.01%
- 용 적 륜 : 4.99%
 - 규 모 : 지상 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노출 콘크리트 패널, 자연석 쌓기, 로이복층유리
 - 주차대수 : 36대(장애인주차2대 포함)

당선작
임용훈 건축사, 변진식 건축사
/ (주)키즈 건축사사무소





신뢰로 함께 다진 *10년*
함께 완성할 *100년*
건축사공제조합

자산 **1,500억원 달성!**
더 든든한 신뢰와 함께 나아갑니다.

☒ **혜택은 더 크게, 부담은 더 적게!**

- 입찰보증 무료
-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인하
- 공제사고 발생 시 구상권 미 청구

☒ **더욱 빨라지고 간편해진 업무처리**

- 공제증권 및 보증서 자동발급 확대
- 보증서 징구 서류 간소화

☒ **복지혜택 대폭 확대**

- 마일리지 적립 혜택
- 각종 할인 제휴(건강검진·신용평가·공인인증서 할인 등)
- 자문서비스 제공(노무/법률)